

우리는 삶으로 예배합니다(행2:42~47)

[사도행전 2:42-47]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자 한다.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답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알려진 안수현 씨가 썼던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수고'라는 단어가 자꾸 맴돈다. 타계하신 안병무 목사님은 그의 수필집 [너는 가능성이다]에서 이렇게 쓰셨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 ...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 '해지는' 경우이다."

사랑이란 말을 지나치게 흔하게 쓰다 보니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못 알고 있다.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에 따르는 수고는 회피함으로써 사랑이 사랑 되지 못하고 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해야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시간을 정해 놓고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라면, 특정한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삶에서 저절로 드러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만 했던 특정한 예배가 '드러지는' 것입니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삶과 예배를 이 분별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목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드러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일,

이 모든 일이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일들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일과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교하신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변화산 새벽기도회에서 잠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호주 대회에서 참인상적이었던 강의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는 Lyn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제목이 '9 to 5 window'라는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 '9 to 5'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의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사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누구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증거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인사말을 듣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TGIF!"

제가 아는 것은 한국에서 보았던 식당의 이름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Thank God Its Friday!'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말의 뜻은, 주말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 쉼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holy' 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월요일에 학교에 오면 교수들이 'Monday sickness'라는 말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진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어떻게 성공이

데, 고달픈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자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Lyn 목사님의 강의가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외쳐야 하는 것은 TGIF가 아니라 'TGIM'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Holy Worship'의 시작은 주말이 아니라, 월요일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능력의 장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교회는 11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모두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변호사, 선생님, 학원 강사 등등 말이죠. 이 목사님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묻는답니다.

"목사님은 언제 full time으로 목회를 할 건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나는 이미 full time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장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직장, 병원에서

이 목사님은 치열하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께서 성전을 떠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사역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97%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꿈꾸는 것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 하늘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잘 못 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적인 것일까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진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어떻게 성공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왜곡된 방식을 가지고 예

수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

우리 자신이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고 힘 있고 고

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

는 것이 분명하지만, 공부 잘 하지 못하

는 사람이나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내

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대통령이 예수 믿

는 사람이고, 재벌이 예수를 믿고, 대학

교총장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다른 세

상,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

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동안 교회에서 '성장'을 이야

기했고, 교인들에게는 '성공'을 이야기했습

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

나님께서 이루시니, 높은 위치를 꿈꾸고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사회

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에 가장 강한 영

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사

람들은 누구일까요? 얼핏 떠오르는 사람

이 가톨릭의 이태석 신부, 개신교에서는

안수현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둘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않

나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제자 중에 집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사도 바울

부터 모든 교회의 지도자는 '낮은 자'들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

직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명예와 부를 보장받게 되었죠. 교황청이

가진 권세와 재산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내릴 만큼 막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와 사회는 타락했고, 하나님은 더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지어온 할 만한 대단한 성당에서 매 주일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신분 상승이 쉽지 않았던 중세 유럽에서 유일한 수단 중의 하나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막에 수도사들과 수도원이 지어지고, 여기저기 수도원이 지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도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한 어느 곳에서

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한,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되지 않는 한 어느

집, 명예 권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자리 잡을 때, 물

질, 명예 권세를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품에 모여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시간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시간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에게 이런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요? 요즘 신앙생활은

잘 하시나요? 예배를 잘 드리시나요?"

이런 말이 가진 핵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잘살고 있습니까?" 그런 면

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관론적 낙관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척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권세와 같음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때로 고난을 가져오게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

설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 암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 말씀이 깨닫힐 때 알게 됩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은 것인 죠.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분명한 공동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삶의 예배'라는 것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주일 성수 혹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통법의 규율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고민하게 했던 것이 있죠.

'주일에 공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주일에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사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주일에 버스 혹은 택시를 타도 되는가, 마는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학창시절 시험 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아버지가 잠을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넘으면 바로 깨워서 공부하도록 말이죠.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무리 쓰레기가 대문에 쌓여도 주일에는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은 공부해도 안 되는 날이고, 놀아도 안 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삶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행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나,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공부하고, 오락하고, 장사하고, 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방종'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드는 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술'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에서 친교와 회식자리에 술이 빠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정말 술을 마시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실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

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지만, 누군가에게 놀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나 '마셔도' 되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마실 물이 좋지 않아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포도주 정도는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만찬에 끓 포도주를 담을 때, 절대로 술을 섞지 않고 자연발효를 시킨답니다. 포도는 발효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성분이 생기고 도수가 올라가는데, 소주를 섞은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면 불경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면 경건한 것인가요?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포도주를 만들 때, 구별된 것을 가지고 잘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귀한 마음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참 무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 시장으로 유통되면 일반고기보다 조금 빨리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누군가 보고 실족하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엄기영 목사의 책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술을 먹는 마음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한다. 이웃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데, 그를 위해 함께 한잔 먹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틈에 한잔 마시자는 방송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정확히 알까?"

관절과 골수를 펼쳐 조개어 꺽갈하시는 주님의 영이 아신다. 자유함인지 방종인지, 정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에 새겨진 법을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규정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원칙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험아 살면 유통의 요구를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유통으로부터 자유함이다.

성경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서 안식일에 하셨던 일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을 까불어 드신 이유는, 배고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해가 더 잘 될듯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키려고 했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유통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싶으셨던 것 이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을 결정하고, 그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사는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둘째는, 정직하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정직함'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죠. 그럼 정직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기독교의 특징을 '비관론적 낙관주의'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산 제물'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각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가 삶에서 기꺼이 제물 되어 죽을 수 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장사를 했대?"

"응, 그 사람이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역설적이기는 한데, 기꺼이 이 땅에 살면서 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정직함'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죠. 그럼 정직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기독교의 특징을 '비관론적 낙관주의'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산 제물'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각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가 삶에서 기꺼이 제물 되어 죽을 수 있나?'

수 있나?"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살다 망할 수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소망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변화한 기도회 때 이런 기도제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린 시동생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고,

교회 이야기, 믿음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믿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흐의호식하다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전쟁에도 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끽끗하게 이긴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암 투병 가운데서도 끽끗하게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믿음의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

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던 그 마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영혼 사람' 그리고 '현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정한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가 삶에서 기꺼이 제물 되어 죽을 수 있나?'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국제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번호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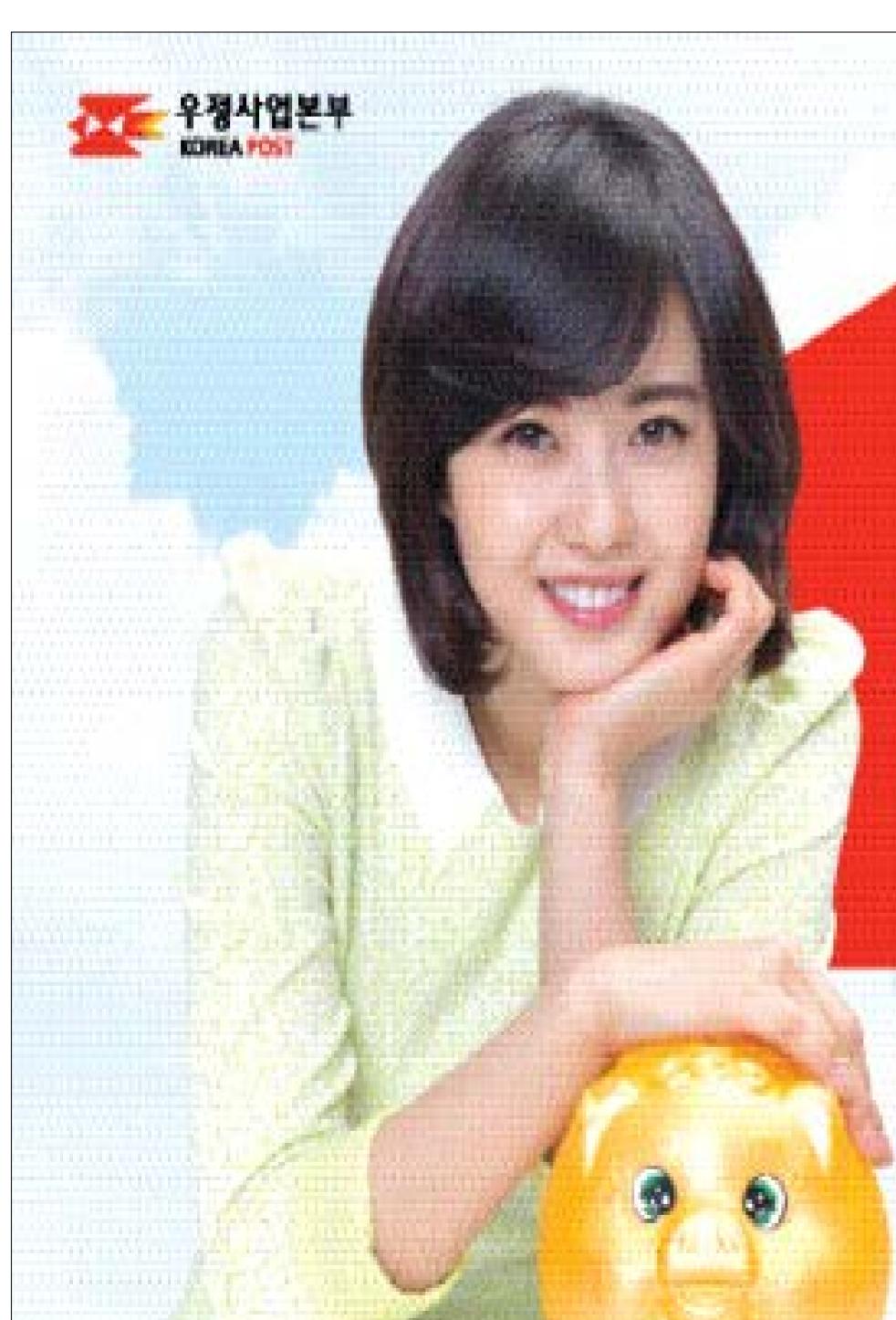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밝혀야”

샬롬나비, 문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좌편향 설정 논평서 발표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0. 문재인 정부는 좌편향 역사 교육이 아닌 국 민을 통합하는 역사교육을 실시 하라

우리나라는 중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저술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집필기준이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전쟁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교과서를 분리하여 검정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등장한 좌편향된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물을 비판 없이 서술하였다. 이러한 좌편향된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 2013년에 교육부가 제작한 보수적인 시각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겸인장을 통하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교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좌편향의 시민단체들은 물리적 압력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한 좌편향을 바로잡고자 국정교과서 제작의 시도에까지 이르렀다.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었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고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북한사 서술 소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 회복 문제, 임정 정통성 회복 필요, 천일문제 미적시, 외형적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음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지금까지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판하여 개정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좌편향으로 되돌리면서 진행되고 있다. 살롬나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1.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해석을 바탕으로 저술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저술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이다. 문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집필기준 개정 시안은 출발부터 커다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근현대사 역사서에서 우파와 좌파의 역사해석이 상당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의 논쟁이 지속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양편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해석들을 가르쳐야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교과서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역사서술 자체가 항상 논쟁거리이고, 학생들은 어느 한 편의 진영논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은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과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지, 특정 학파들의 입장과 교조적으로 전수하려는 것은 아니다.

역사해석의 진영논리를 벗어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술되어야 하겠다.

2.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는 것은 헌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은 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 역사교과서는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번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현재는 헌법 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로 바꾸어 해방 후 좌파가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까지 포함하여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은 폐고 경경유작을 넣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북한 사회 변화라는 기준만을 서술할

한다.

3.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 교과서들보다 더욱 친북적인 서술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들의 친북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판가들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규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집필기준은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제목만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저술되는 북한관련 내용에서 친북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더구나 집필기간은 매우 짧고 검인정을 심사하는 인력과 기간은 더욱 짧다.

4. 대한민국과 관련하여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권력 세습, 인권 억압 등)이 거의 삭제되어 있어 교과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6.25전쟁에서 남침의 명시가 빠졌고, 그 후의 설명에서 남한에 대해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라고 표현하여 남북한이 동일한 독재체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은 폐고 경경유작을 넣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북한 사회 변화라는 기준만을 서술할

뿐 북한의 권력세습이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과연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교과서인지를 질문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지난 번 국정교과서의 북한 내용이 축소되었다. 북한에 대해 확대서술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서술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5.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수립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서술해야 하겠다.

현재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수립을 대립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립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제대로 된 국가가 수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 후에 정부수립을 위한 노력 속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12월 12일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립은 1910년 국권을 상실한 이후의 온 국민의 독립운동의 결실을 뱉은 것이다.

그러한 독립운동의 중심조직이 3.1운동의 열매로 탄생한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의 승인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

한민국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독립노력의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6.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역사교과이면서 동시에 안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집필기준에는 남북의 통일노력의 내용만이 들어가 있고, 안보와 관련한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북한의 핵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지만, 그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안보는 선행되어야 한다.

나라의 안보 없는 통일지상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는 통일의 방안과 함께 안보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역사교과서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국민통합을 이루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교과서가 바로 역사교과서이다. 역사교육은 우리나라의 과거역사를 배움으로써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교과서 저술을 통해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국민통합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역사서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연둣빛 십자가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자랑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마27:46) 아들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 그냥

손을 놓아버신 하나님,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저를 기쁘게 살리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으로 받으며 십자가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넘치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

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주옵소서. 지은 죄가 많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씨 뜯 깊을 줄 알이” 뜯 깊을 사랑에 젖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만 위하던 사람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악을 따라 살던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변하게하시고,

개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을 화평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베

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천동의 아들, 보아내게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내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가 온 세상의 생명으로 시들지 않고 꽃피파릇 자라나기를 희망합니다. 실천하는 사랑의 연둣빛 십자가가 이 땅 위에 많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완전히 죽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가득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향내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승실탈, 승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뜻 입을 치웠던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해,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아깝고, 오래되고, 물품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광은 내가 만들고 기우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티스로 이호재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ISBN 978-89-543-7059-0

글정아일스튜디오 | 그림: 김민경 대필: 이호재 | ISBN: 978-89-543-7059-0